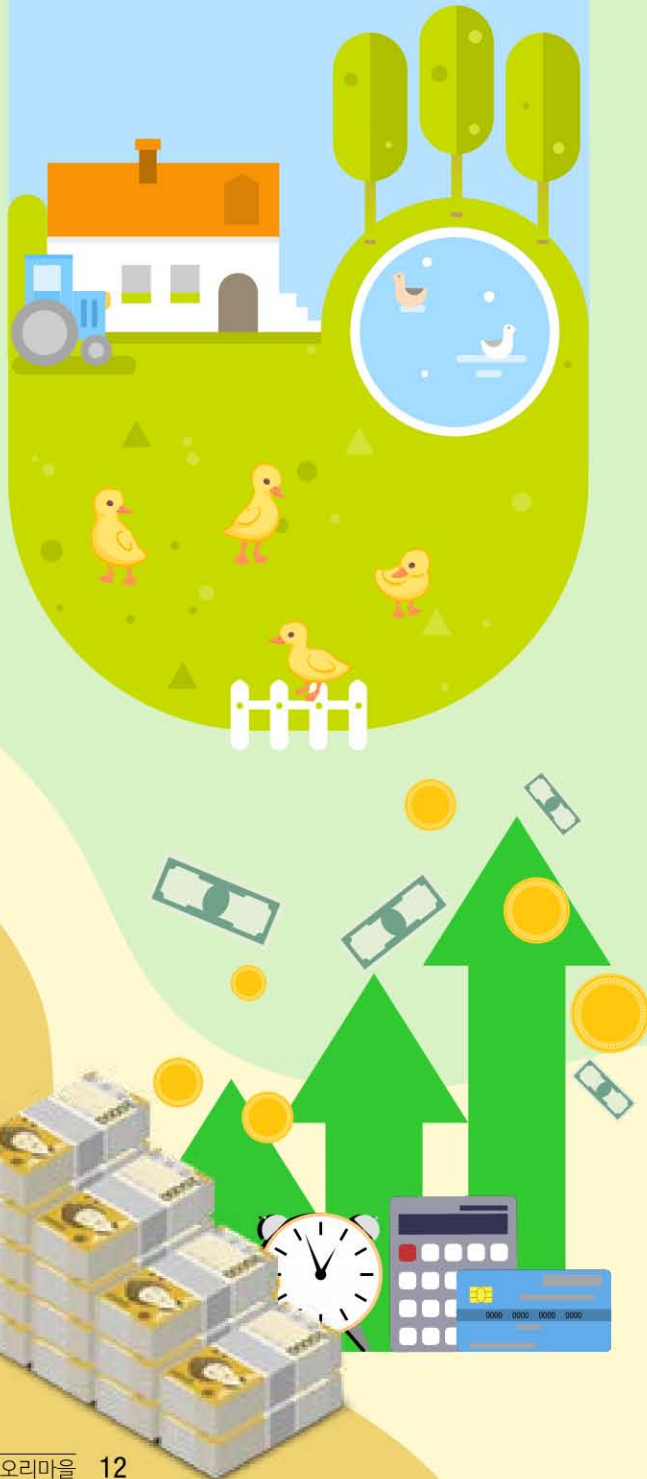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방역요령 등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리군 건강관리의 중요성

오리군 건강관리의 기본 요소는 필요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오리군 내의 비정상적인 폐사율이나 질병의 증상들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농장주를 포함한 농장 내 오리 관련 종사자는 오리군의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발병할 경우, 이 증상을 가장 먼저 보게 된다. 만약 신고대상 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전염병이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 농장의 차단방역시스템을 뚫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농장과 오리 산업 전반까지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다. 질병을 빨리 발견하여 전파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환축을 빨리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다.

예방백신 접종

모든 백신 접종 기록과 수의사의 진단 및 치료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농장의 폐사기록들은 농장 관리자에게 오리군 내에 잠재되어있는 문제점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보다 전문수의사 또는 병성검사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면 자가 격리를 한다. 이후 법정 전염병으로 진단이 되면,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준수해야 할 여러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농가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수한 품종의 오리를 완벽한 시설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사육관리 하더라도,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효과가 거의 없거나 완치된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오리를 키우는 사육자는 오리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예방백신 접종은 발병하였을 때 치료가 쉽지 않은 바이러스나 세균성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오리에게 음수, 주사 분무, 점안 접종 등을 이용하여 백신을 미리 투여함으로써 오리에게 항체를 만들어 주고, 실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능동면역을 유발시키는 과정이다.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이해와 오리군의 항체수준, 건강상태 등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며, 각종 백신에 대한 특징과 접종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접종한다.

중요 질병에 대해서는 혈청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추가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01

백신 제조회사의 지시사항을 항상 따른다. 용법과 용량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백신효과를 얻기 힘들다. 용량이 적거나 백신경로가 잘못된 경우 백신은 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지 못해 항체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고, 과도한 백신 투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02

질병이나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오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절대 접종하지 않는다.

03

제조회사의 지시대로 백신을 보관 및 수송해야 한다.

04

백신을 2~5°C에 보관한다. 동결건조백신은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따르며 접종 직전에 희석하고, 사용 후 남은 백신은 불활화 되고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기처리 한다.

05

생백신 접종 시 염소제가 극소량이라도 함유된 물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일 다른 물이 없다면 염소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탈지분유 같은 물질을 사용하고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지키면 어느 정도 염소제를 불활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06

백신접종 시 오리군 전체에 균일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한다. 음수나 분무접종 시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균일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일은 접종 프로그램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리사항이다.



보강 방안

- ① 가금전문수의사와 상의하여 해당 지역 및 사육하는 오리의 종류에 적합한 고유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 ② 백신스트레스를 적게 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 ③ 대사촉진제나 영양제 등을 투여하여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 ④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백신의 부적절한 보관 및 투여 방법 등)은 없는지 파악하여 제거한다.

축종별

가금전문수의사와 상의하여 각 지역과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의 품종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산출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육용오리보다 종오리가 사육기간이 길고 장기간 오리알을 생산해야하기 때문에 올바른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육형태별

1) 평사 사육

- 오리사를 밝게 하여 오리를 오리사의 한쪽으로 몬다.
- 오리가 한쪽으로 모아졌으면 주변을 어둡게 하고 환기가 잘 안되도록 한 다음 약 30~40cm의 높이에서 오리를 향해 2차례 백신을 충분량 분무한다.
- 약 10분 후에 조도와 환기를 원래대로 한다.

2) 케이지 사육

- 환기량을 감소시키고 케이지에서 약 20cm정도 떨어져 오리를 향해 균일하게 분무한다.
- 약 10분 후에 환기량을 원래대로 조정한다.

사육환경별

1) 평사 사육

- 오리사를 밝게 하여 오리를 오리사의 한쪽으로 몬다.
- 오리가 한쪽으로 모아졌으면 주변을 어둡게 하고 환기가 잘 안되도록 한 다음 약 30~40cm의 높이에서 오리를 향해 2차례 백신을 충분량 분무한다.
- 약 10분 후에 조도와 환기를 원래대로 한다.

2) 케이지 사육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미생물, 염소나 중금속 특히 철 성분 등의 다양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수질이 염기성이면 식초 등을 넣어(물 250~300ℓ 에 식초 10~15mℓ 정도) 산성화 후 사용한다.
- 수도물 사용 시 잔류염소가 문제되면 탈지분유(물 1ℓ 에 2g)를 첨가하여 중화시킨다.